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11 제166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이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33주일 (11월 13일)

성전파괴 예고와 재난의 시작 (루카21,5-19)



성전 파괴 (니콜라스 푸생, 1637년, 유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7-19)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때 수많은 반대와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1. 17.)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를 이끄시어 당신의 사랑안에 머물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5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6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7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8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9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10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11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1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13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15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16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8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19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루카 21,8)

위 성경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루카 21,17)

신앙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굳게 믿으며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즐겨 바치십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로 등극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프리드리히(Friedrich I, 1123-1190) 대왕, 그는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천사가 나타나 그의 죄악을 낱알이 지적해주더니 숫자 ‘6’을 일러주고는 떠나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왕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러고는 천사가 알려준 숫자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여섯 시간밖에 없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결론 지은 왕은 여섯 시간 동안 회개와 선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섯 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자 여섯 시간이 아니라 6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다시 6일을 6주간으로, 6주간을 6개월로, 6개월을 6년이라 믿으며 선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산 프리드리히는 여전히 죽지 않았지만 선행으로 굳어진 그의 삶은 이미 성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송현신부)

교회는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인 34주간이 가까워오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종말에 대해 묵상하게끔 복음을 통해 도와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 예언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종말의 징조에 대해 성경의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사칭, 전쟁, 재난, 기근, 전염병, 박해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종말이 곧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현세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에 떨며 가짜 그리스도에 현혹되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며 그분의 증인이 되어 인내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박해가 없지만 수많은 기상이변과 전쟁, 재난 등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희망을 두며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느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 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34주일 (11월 20일) 온 누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십자가에 달린 왕(루카 23,35-43)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다.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45년, 캔버스에 유채, 위트레흐트 국립박물관, 네덜란드)

예수님께서서는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내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51항 참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향하여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서울주보, 2013. 11. 24.)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끄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연중 마지막 주일에 지낸다.

본래 대축일 명칭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라틴어 본문의 수식어를 명시한다는 이유로 2017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변경됐다. 교회가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연중 마지막 주일에 지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정이 인간 세계에서 최악의 세력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각자 권리와 의무 이행, 더 나아가 그리스도왕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뜻을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교황 비오 11세가 1925년 교서 「첫째의 것」(Quas Primas)을 통해 제정, 공포했다. 그리스도왕(Christus Rex, Christ the King)의 의미를 성대히 기린다는 취지에서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칭호는 예수가 지닌 왕의 직능을 뜻한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의 족보에서 예수가 다윗의 후예로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한다(마태 1,1-17). 또한 동방의 점성가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소개한다(마태 2,2).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인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펼친 구세주이자, 구원을 위해 온 인류를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는 왕이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부른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데에도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제정한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 왕정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누리고 인간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정으로 더욱 새롭게 되도록 기원하게 된다. [가톨릭신문, 2020년 11월 22일]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양덕본당 소공동체

양덕동본당 3구역 2반

저희 양덕동본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정을 세심하게 살펴 돌보아주시는 사랑 깊은 주임신부님(김순곤 비오)과 코로나19로 흩어졌던 청소년을 활발히 챙기고 신심으로 이끄시는 작은 신부님(이진수 프란치스코하비에르), 다정한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본당 뒷일을 도맡아주시는 두 분 수녀님(신 크레센시아, 이 아나비아)의 정성과 신자들의 열정이 더해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체조배와 이웃사랑 실천, 주님 말씀 선포에 마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양덕 3구역 2반)는 주일미사 안내도 신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 적소에서 움직이며 신자들의 밝은 미소로 화답을 받았습니다. 반원들 모두 그동안 모아 두었던 쌈짓돈으로 점심도 맛있게 먹고, 담소도 나누며, 서로 칭찬과 격려를 보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파될 무렵 소공동체 카톡방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본당 소식과 소공동체 소식을 전달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원 중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병자를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 대상에 한 분 한 분을 추가하면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신 것은 큰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 노, 병, 사는 진리이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새 삶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

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장수도 아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인생 목표를 굳건히 지키고 믿으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어떤 고통도 무의미도 우울도 무신론 과학자의 무책임한 신앙에 대한 비판도 사이버의 유혹으로도 신앙의 끈을 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성당 방역을 자주하게 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본당이 깨끗해지고 신자들이 서로 도우려는 마음과 정이 깊어졌습니다. 청소년 방역에 한결같이 지원하는 지역분과의 부지런함에도 감사하며, 본당 신자 모두가 한마음 되어 냉담 교우들 돌아오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천국 살이를 위해 잘 살아가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전례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교회의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 내시고 실현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희생 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구원 활동을 수행할 권능을 맡기셨 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모든 시대와 전 세계의 모든 신자에게 당신 의 은총을 전해 주시고자 몸소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

해설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교회 때부터 지상의 전례에 현존 하시는데, 지상 전례는 천상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리서 1084-1090항 은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전례에 현존하심을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 은총을 주시기 위해 전례 안에 현 존하신다. 그러므로 이미 천상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서 지상 전례에 참여하고 있음을, 따라서 우리가 천상 전례에 참여하고 있음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용어

희생 제사와 성사들

성찬례 곧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심으로, 이 성사들이 그저 표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제로 성사의 은총을 이루어 준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전례 때에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성령과 교회는 전례 안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이룬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그리 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키시고, 회중들의 신앙에 그리스도를 일깨우시며 드러내 주 신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현존하게 하시고 실현시키시며,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명에 결합시키시어 교회 안에서 친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해설

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신다(1093-1098항). ② 성령 계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상기시키신다(1099-1103항). ③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의 신비를 실현시키신다(1104-1107항). ④ 성령께서는(그리스도와 우리 그리고 우리 서 로의) 친교를 이루신다(1108-1109항). 교리서는 이렇게 네 가지 성령의 활동을 설명 한다. 성령께서는 특히 구약과 신앙의 하느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어 우 리가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전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이룰 준비를 갖추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또한 하느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들을 기념-기억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어 성사가 되고, 그 성사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신비체가 된다.

용어

친교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가장 큰 열매다. 친교라고 번역되는 그리스말 코이 노니아는 사랑으로 하나 됨을 말한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총, 성령의 친교 는 사실 한 하느님 사랑의 세 가지 표현이다.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 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